

## 역기능적 가정, 수치심, 사회적 지지와 폭식의 관계

가 인 숙                      현 명 호<sup>†</sup>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역기능적인 가정과 폭식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이 두 변인간에 수치심과 사회적 지지의 역할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301명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역기능적인 가정을 평가하는 부모와의 유대관계 검사를 사용하여 하위 차원인 부모의 돌봄과 부모의 과보호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수치심과 사회적 지지의 하위 차원인 정보적 지지와 폭식 행동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부모 돌봄의 수준은 폭식 행동을 설명하지 못하였으나, 부모 과보호의 수준은 폭식 행동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과보호는 수치심을 매개로 하여 폭식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각된 부모 과보호의 수준이 높으면 수치심이 높아져서 폭식 행동을 빈번하고 높은 수준으로 이끄는 것으로써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하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부모의 과보호는 정보적 지지와 상호작용하여 폭식 행동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역기능적인 가정환경으로 인해 부정적 정서의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긍정적인 자기상을 심어주고, 부정적 인지의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사회적 지지의 하위 차원인 정보적 지지를 고양시킴으로써 폭식 행동의 발생을 예방하는데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폭식 행동을 줄이는 치료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정서적·인지적 취약성에 초점을 맞춰 접근해야 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 역기능적 가정, 수치심, 정보적 지지, 폭식

<sup>†</sup>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현명호,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TEL: 02-820-5125, E-mail: hyunmh@cau.ac.kr

음식은 생애 초기부터 어머니의 돌봄에 의하여 제공되어 아동에게 배고픔의 고통과 긴장을 감소시켜주고, 아동의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켜주며, 아동에게 위안을 줌으로써 어머니와 자녀와의 관계를 지속시켜준다(Freud, 1946; Winnicott, 1960; Goodsitt, 1983).

Humphrey(1986)는 정신분석에 기초하여 폭식증을 ‘충분하지 못한 양육으로부터 받은 허전한 마음을 음식으로 달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폭식 행동을 하는 사람의 가족구성원은 충분한 돌봄과 공감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하여 과도한 비난과 무시를 함으로써 아동은 물론 성인에게까지도 혼란된 섭식 패턴을 지속시키며 폭식을 유지시켜 준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가정의 역기능은 폭식 정신병리를 발달·유지시키는 요소로써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Humphrey, 1986; Strober & Humphrey, 1987; Holston & Cashwell, 2000). 본 연구에서 역기능적인 가정이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간섭, 통제, 강요의 수준이 높아 갈등 대립이 많으며, 친밀감과 애정, 공감의 정서적 표현은 낮아 가족 간의 응집력이 낮은 것으로써 정의할 수 있다.

특히 부모의 양육행동은 가족의 기능을 알아 보는데 중요한 지표이다. Parker, Tupling과 Brown(1979)은 부모의 양육행동을 돌봄(care)과 과보호(overprotection)로 구분하고 있다. 돌봄 차원은 부모의 애정이나 정감적인 반응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수용과 따뜻함에서 거부와 비난으로 이어지는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과보호 차원은 통제와 과보호, 과잉개입에서 자율성으로 이

어지는 차원으로서 혐오적인 경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이의 환경을 통제할 때, 과도하게 간섭하며 사생활을 침범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식 행동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은 자신의 부모가 충분히 돌보아주지 않았으면서 과보호하였다고 과거의 양육경험을 지각하였다(Leung, Thomas, & Waller, 2000; Murray, Waller, & Legg, 2000). 이들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양육과 공감이 부족하였고, 학대를 받았고, 관계가 소원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부모와 마찬가지로 자신에 대해서도 수용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다(Humphrey, 1986). 또한, 폭식 행동을 하는 여성은 부모가 섭식과 체중, 그리고 외모 등에 대한 문제를 포함한 자신의 사생활과 자율감을 지나치게 간섭하여 자신의 신체상을 부정적으로 지각하게 한다고 보고되고 있다(Herman, 1981; Rorty, Yager, & Rossotto, 1993; Rorty, Yager, Rossotto, & Buckwalter, 2000).

이처럼 많은 학자들은 역기능적인 가정환경의 하나인 부모의 양육행동은 폭식을 유발하고 유지시키는 요인으로 일관성있게 지적하였다. 즉, 부정적인 부모의 양육행동은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하고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폭식행동을 일으킨다고 본다.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인 정서로서 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은 수치심이다. 수치심은 ‘한 개인이 자신 스스로에 대해 전반적인 평가를 내릴 때, 실패의 결과로써 자신을 평가할 때 경험하게 되는 정서이다(Lewis, 1992). 이러한 점에서 수치심은 부정적 정서(Tangney, Wagner, & Gramzow, 1992; Tangney, 1995)이고, 사회적 정서(Shott, 1979; Scheff, 1988)이며, 자의식 정서(Crozier,

1998)이다. 즉, 수치심은 부정적인 기분을 느끼게 하며, 타인의 존재를 항상 가정함으로써 유발되는 사회적 정서이며, 아울러 자신을 지각함으로써 유발되는 자의식 정서이다. 여기서 사회적 정서는 적합(conformity)과 사회적 응집(social cohesion)을 포함한다.

Loader(1998)는 '수치심은 대부분 부모와의 관계에서부터 발생하기 시작한다'고 하였다. 수치심이 많은 아동의 가정에서 부모는 아동에게 비현실적인 목표를 만들어 놓고, 아동이 그 목표에 어울리게 수행하기를 기대하지만 아동은 부모의 기대와 달리 반복하여 수행에 실패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부모는 실망스러운 감정이나 행동을 감추려고 하지 않아서 아동은 자신이 부모를 만족시킬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상처를 받는다. 또한, 이들 부모는 아동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치심을 사용하기도 한다. Pulakos(1996)와 Abell과 Gecas(1997)의 연구에서도 역기능적인 가정환경과 수치심은 관련성이 높았다는 보고를 하고 있다.

수치심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평가하는데 체형에 대한 관심과 체중에 대한 관심의 영향을 과도하게 받아서 신체와 관련하여 부정적인 자기상을 가진다(Goldfein, Walsh, & Midlarsky, 2000). 신체상에 대한 불만족과 마른 상태를 추구하는 경향은 수치심과 상당히 관련이 있어서 수치심이 높은 사람은 폭식 행동이 잦고, 폭식의 수준이 높다고 보고 된다(Sanftner, Barlow, Marschall, & Tangney, 1995; Burney & Irwin, 2000; Hayaki, Friedman, & Brownell, 2002).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역기능적인 가정환

경의 수준이 높을수록 부정적 정서, 자의식 정서, 그리고 사회적 정서인 수치심 수준을 높게 만들 것이다. 왜냐하면 수치심은 자신의 평판, 그리고 명예와 관련(Crozier, 1998)이 되기 때문이다. 역기능적인 가정은 수치심 수준을 높게 만들어서 폭식 증상의 수준을 높게, 그리고 빈번하게 만들 것이다. 예로, 전철은(2002)의 연구에서도 가정에서 학대받는 여성들은 수치심이 높아져서 PTSD증상이 높아졌다고 기술하였다.

역기능적인 가정환경 하에서 성장한 모든 자녀들이 폭식증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가정의 역기능적인 수준이 폭식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가 완전한 설명력을 갖지 못한다(Berg, Crosby, Wonderlich, & Hawley, 2000; Moulds et al., 2000; Murphy, Troop, & Treasure, 2000).

Cohen과 Wills(1985)는 위협받는 상황이나 적당한 대처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치면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며, 이는 부정적인 정서와 심리적 반응·행동을 보이게 된다. 이 결과로 병적 행동을 일으킨다. 이때 사회적 지지는 완충작용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사회적 지지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킨다. 폭식 행동을 하는 사람이 주변 사람으로부터 받는 지지를 낮게 지각하고 주위 환경의 지지망에 만족하지 못하면 불안을 경험하고 주변 사람으로부터 소외됨을 느낄 것이다(Grissett & Norvell, 1992). 그러나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한다면 역기능적인 가정환경 수준을 완충하여 병적 행동인 폭식 행동을 억제시키거나 아니면 촉발시킬 것이라고 가정된다.

Tracy(1990)와 Miller와 Darlington(2002)은 사회적 지지의 제공자로서 부모와 친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가정의 분열 체제를 경험하고 있는 아동에게는 친구가 가족을 대신해서 지지의 제공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한다. LaRocco, House 및 French(1980)와 Kurdek과 Schmitt(1987)의 연구에서도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데는 자신이 소속한 집단의 주변사람에 의한 사회적 지지가 가장 많은 도움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이 대학생 성인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역기능적 가정환경 하에 있게 되면 주변사람, 특히 친구에 의한 사회적 지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이다.

한편 Lavin과 Cash(2000), 그리고 Hargreaves와 Tiggemann(2003)의 연구에서 매스미디어로 인하여 마른 신체상의 정보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은 현재 신체상에 대하여 만족하지 않았으며, 이는 섭식혼란과 관련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Peterson 등(2001)의 연구에서는 섭식장애 증상을 보고하는 사람에게 비디오테이프와 책자들을 이용한 심리교육적 정보와 구조화된 자조 집단 체제에서 주고받는 정보는 치료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했다. 국내에서도 최주희(1994)는 여대생에게 있어서 사회적 지지 중 정보적 지지가 중요하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결에 대해서 정보나 충고를 받는다고 지각한다는 결과라고 기술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도 역기능적인 가정환경 하에서 폭식 행동을 보이는 여성은 지각된 사회적 지지 중 친구에 의한 정보적 지지가 가장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는 역기능적 가정이 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역기능적 가정의 아동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수치심이 폭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치심의 매개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역기능적 가정의 아동이라 하더라도 주변에서 충분한 사회적 지지를 받는다면 그 효과가 상쇄될 것이므로 사회적 지지의 완충 효과를 검증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이는 여성에게 있어서 대학생 시기는 신체상과 체중에 대한 관심이 높은 반면 체중의 증가가 계속되는 기간이므로(Schwitzer, Bergholz, Dore, & Salami, 1998) 여대생에게서 섭식장애가 흔하기 때문이다(Thelen, Mann, Pruitt, & Smith, 1987).

## 방 법

###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도에서 대학교 재학 중인 여학생 총 3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 중에서 누락된 문항이 많거나 무성의하게 응답한 사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총 301명의 자료만 분석에 사용하였다.

### 측정 도구

1. 부모와의 유대관계 검사(Parental Bonding Instrument; PBI) 16세 이전까지 부모가 어떻게 양육하였는가에 대한 지각을 평가하기 위해 Parker 등(1979)이 개발한 PBI를 송지영(1992)이 번안하여 표준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는 부모의 돌봄 .90, 부모의 과보호 .90이었다.

2. 수치심(The Test of Self-Conscious Affect; TOSCA) 자의식 정서를 측정하기 위해, Tangney(1989)가 개발한 TOSCA(The Test of Self-Conscious Affect)를 심중온(1999)이 변안한 것으로 사용했다. 본 연구에서는 수치심 지표만 선택하여 사용하였고, 수치심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는 .76이었다.

3. 사회적 지지(Interpersonal Support Evaluation List; ISEL)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로서 Cohen과 Hoberman(1983)이 개발한 대인관계지지 평가 질문지(Interpersonal Support Evaluation List; ISEL)를 기초로 하여 김정희와 이장호(1986)가 우리나라 상황에 맞도록 수정·변안한 것을 윤소연(1993)이 재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보적지지 문항만을 사용하였으며,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는 .88이었다.

4. 폭식증 검사 개정판(Bulimia Test-R) 이 상습식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폭식증 검사 개정판을 사용하였고, 이 검사는 신경성 폭식증의 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Smith와 Thelen(1984)이 개발한 폭식증 검사(Bulimia Test; BULIT)를 Thelen, Farmer, Wondelich, 및 Smith(1991)가 개정한 것으로 윤화영(1996)이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체중조절에 관한 문항은 채점에서 제외하고 28문항만으로 폭식 습관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폭식행동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는 .94이었다.

## 절차

부모와의 유대관계 검사, 수치심 척도, 사회적 지지 척도, 폭식증 검사로 구성된 질문지를 대학생에게 제시하였다. 질문지 작성에 걸리는 시간은 약 20분 정도였다.

## 자료 분석

본 연구의 모든 자료 분석은 SPSSWIN 11.0을 사용하여 이루어졌으며,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부모의 돌봄, 부모의 과보호, 수치심, 정보적 지지, 폭식에 대한 측정 변수의 신뢰성 검정은 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을 하였다. 부모의 돌봄, 부모의 과보호, 수치심, 정보적 지지 및 폭식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계수를 이용한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모와의 유대관계 검사를 사용하여 역기능적인 가정을 측정하고, 수치심이 역기능적 가정과 폭식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정보적 지지가 가정의 역기능과 폭식 간의 관계를 중재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결 과

표 1과 2는 각 변인의 기술통계치와 변인간의 상관관을 표기한 것이다. 이 표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상관분석 결과, 부모의 돌봄은 수치심과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으나 정보적 지지와 정적상관이 있었다,  $r=.280, p<.01$ . 그리고 부모의 돌봄은 폭식과도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

부모의 과보호는 수치심과 정적상관,  $r=.234, p<.01$ , 정보적 지지와 부적상관,  $r=-.354, p<.01$ , 폭식과 정적상관이 있었다,  $r=.272, p<.01$ .

수치심은 폭식과 정적상관,  $r=.368, p<.01$ , 정보적 지지는 폭식과 부적상관이 있었다,  $r=-.348, p<.01$ .

표 1.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인	평균	표준편차
부모 돌봄	46.36	9.62
부모 과보호	28.78	10.53
수치심	41.60	7.57
정보적 지지	36.93	5.44
폭식	56.73	18.68

표 2. 변인간의 상관관계

	1.PC	2.PO	3.SHA	4.INF	5.BUL
1	-				
2	-.351**	-			
3	-.066	.234**	-		
4	.280**	-.354**	-.317**	-	
5	-.054	.272**	.368**	-.348**	-

\*\* $p<.01$

1. PC : 부모 돌봄                      2. PO : 부모 과보호  
 3. SHA : 수치심                        4. INF : 정보적 지지  
 5. BUL : 폭식

역기능적인 가정이 폭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모의 돌봄과 부모의 과보호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폭식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폭식을 유의하게 설명할 수

있는 변인은 부모의 과보호  $F(1, 299) = 23.894, p<.001$  차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역기능적 가정이 폭식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R <sup>2</sup>	F	β
부모과보호	.074	23.894	.272***

\*\*\* $p<.001$

수치심이 부모의 과보호와 폭식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절차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부모의 과보호는 매개변인으로 상정한 수치심을 유의하게 설명하였고, 폭식 역시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또한 수치심은 폭식을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그리고 독립변인으로부터 종속변인으로 가는 회귀 계수가 두 번째 방정식보다 세 번째 방정식에서 더 적어졌다. 그러므로 수치심은 부모의 과보호와 폭식간의 관계를 매개한다고 할 수 있다.

표 4. 수치심의 매개효과

단계	종속변인	Beta
1 단계 : 독립변인	→ 매개변인	
	부모과보호 → 수치심	.234***
2 단계 : 독립변인	→ 종속변인	
	부모과보호 → 폭식	.272***
3 단계 : 독립변인, 매개변인	→ 종속변인	
	1) 부모과보호 → 폭식	.197***
	2) 수치심 → 폭식	.332***

\*\*\* $p<.001$

우선 부모의 과보호가 폭식행동에 미치는 정도가 정보적 지지에 따라 달라지는 가를 알아보았다. 표 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부모의 과보호와 정보적 지지가 종속변인을 설명한 후에

교차항(부모의 과보호\*정보적지지)이 투입되었을 때, 교차항의 F값이 유의하여 중재효과가 있음을 증명하였다.

표 5. 사회적 지지감의 정보적 지지의 중재효과

독립변인	R <sup>2</sup>	R <sup>2</sup> 증가분	F
부모 과보호	.074	.074	23.894***
정보적지지	.146	.062	25.549***
부모과보호*정보적지지	.200	.054	24.704***

\*\*\*p<.001

### 논 의

본 연구는 역기능적인 가정환경이 폭식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Leung et al., 2000; Murray et al., 2000; Rorty et al., 2000; Okon, Greene, & Smith, 2003)를 바탕으로, 역기능적인 가정환경과 폭식을 중재 내지는 매개하는 변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역기능적 가정환경은 부모 유대관계 검사를 통하여 측정하였는데 이 도구는 부모의 양육형태를 어떻게 지각하는가를 측정하는 도구이다. 부모 유대관계 검사는 부모의 양육형태를 부모의 돌봄과 부모의 과보호라는 두 개의 차원으로 나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매개변인으로서 수치심과 중재변인으로서 사회적 지지감을 검증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어린시절에 지각된 부모 돌봄의 수준과 폭식 행동의 관계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에 부모의 과보호는 폭식행동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 연구결과(Palmer, Oppenheimer, & Marshall, 1988; Calam, Waller,

Slade, & Newton, 1990; Leung et al., 2000; Murray et al., 2000)와 비교할 때 부모의 과보호는 일치하지만 돌봄은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부모의 돌봄이란 부모가 자녀에게 어떠한 정서적 태도를 가지는가에 대한 것으로서 부모가 따뜻한 태도를 취하는지 아니면 냉담한 태도를 취하는가에 대한 것을 말한다. 부모의 돌봄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지만 폭식행동이 나타나게 하는 요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녀의 혐오적인 경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이의 환경을 통제할 때, 과도하게 간섭하며 사생활을 침범하는 것을 말하는 부모 과보호는 폭식행동의 중요한 요인이었다.

Rorty 등(1993, 2000)의 연구에서 폭식증 환자의 어머니는 자녀의 청소년기 동안 자녀의 섭식, 체중, 외형에 대하여 과도할 정도의 관심과 간섭을 보였으며, 아버지의 경우도 자녀의 섭식행동에 커다란 관심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많은 여성은 섭식장애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으로 자신의 청소년기 신체상의 변화에 대하여 부모의 짓궂은 놀림과 살을 빼도록 강요하는 가족간의 경쟁이라고 묘사하였다. 또한, 이들은 남성 가족이 자신의 신체상의 변화에 대하여 똥똥한 사람이라고 부르던지 혹은 다른 좋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여 부름으로써 자신을 놀렸다고 회고하였으며, 가정의 신체상 기준에 따라 말라야 한다는 압력을 받아서 심지어는 엄마의 폭식과 하체사용을 모델링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회고하였다.

많은 선행 연구(Attie & Brooks-Gunn, 1989; Hill, Weaver, & Blundell, 1990; Pike & Rodin, 1991)에서도 자녀의 섭식, 체중, 외형에 대하여 부모의 모델링과 직접적인 압력이 자녀의 섭식 혼

란과 관련이 있었다. Striegel-Moore와 Kearney-Cooke(1993)의 연구에서는 자녀의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대한 신체적 외모에 대하여 어머니와 아버지의 관심과 압력이 비슷했다고 보고했다.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폭식하는 여성은 부모의 과보호 차원으로 자녀의 환경을 통제할 때 과도하게 자녀의 신체상, 섭식태도, 행동, 외형까지도 간섭하는 것으로 기술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함께 생각하여야 할 점은 사회문화적인 영향이다. 최근에 열풍, 몸짱 등 외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다이어트 열풍이 불고 있는 사회문화적 배경이 폭식 행동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많은 연구(Cusumano & Thompson, 1997; Furnham, Dias, & McClelland, 1998; Lin, 1998; Mckinley, 1998; Posavac, Posavac, & Posavac, 1998; Geller, Srikaneswaran, Cockell, & Zaitsoff, 2000)에서 사회문화적 영향으로 여성은 날씬해야 한다는 압력 하에 놓여 있다고 주장하였다. 여성의 신체는 하나의 보여지는 대상으로써, 우리의 문화가 마른 신체상을 여성이 추구하도록 조장하고 있다. Forbes(2001)의 연구에서도 여대생은 비현실적으로 이상적인 신체상을 내재화함으로써 말라야 한다는 사회문화적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다고 기술하였다. Havvio-Mannila(2001)의 연구에서는 현 사회는 탄력 있고, 날씬하며, 근육질적인 신체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 통제를 잘 한다고 평가하고, 이들은 밝은 미래를 보장받겠다고 기술하였다. 반면에 체중이 나가는 신체는 수치스럽고 성희롱과 같은 불쾌한 경험을 초래한다고 기술하였다. 이는 부모의 양육행동 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배경이 여성의 날씬해지고자 하는 바

람을 유도했다고 설명할 수 있다.

둘째로, 수치심은 역기능적인 가정환경의 수준과 폭식 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심의 매개효과와 입증은 지각된 부모의 과보호의 수준이 자녀의 수치심을 높임으로 인해 폭식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있음을 확인하게 해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Pulakos, 1996; Abell & Gecas, 1997; Loader, 1998; Hahn, 2000)에서 역기능적인 가정환경일수록 수치심이 높아진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그리고 수치심이 높으면 폭식 행동이 높아지고 빈번해진다는 선행 연구들의 결과(Sanftner et al., 1995; Burney & Irwin, 2000; Hayaki et al., 2002)와도 일치한다. 요약해서, 본 연구에서는 역기능적인 가정환경이라고 지각하는 여대생은 자의식 정서·사회적 정서인 수치심이 커지고 이는 폭식행동을 유발시켰다고 논의할 수 있겠다.

매개효과는 개입에 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부모의 과보호가 직접적으로 폭식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또, 다른 경로로 부모의 과보호가 자녀의 수치심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이는 결국 폭식 행동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폭식 행동에 대한 가정적 접근은 폭식 행동을 위한 개입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리고 수치심의 매개효과 확인은 부모의 과보호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치심의 변화가 없다면 폭식 행동으로 관련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치심의 매개효과는 폭식 행동의 개입에 있어서 수치심에 초점을 두는 것이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의 하위 차원으로 정보적 지지는 역기능적인 가정과 폭식 수준의 관계를 중재하였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의 부

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보고한 선행 연구(강성희; 1991; Dubois, Felner, Brand, Adam, & Evans, 1992)와 일치한다. 폭식 행동은 다양한 사건과 상황의 영향을 받는다. 특히, 대인관계가 폭식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타인과 관계가 좋다고 지각하면 자존감이 증진되고 몸매나 체중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고, 스트레스 요인이 줄어들면서 폭식 행동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친구에 의한 정보적 지지는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조언이나 충고를 받아들여 문제를 이해하고 문제사건을 대처하는데 효율적으로 도움을 주어 가정의 역기능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경감시켜 폭식 행동이 적어진다고 설명할 수 있겠다. 사회적 지지의 중재효과 확인은 부모의 과보호와 사회적 지지의 변화가 상호작용하여 폭식 행동으로 관련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효과는 폭식 행동의 개입에 있어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 중 정보적 지지에 초점을 두는 것이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를 통해 폭식 행동과 관련된 심리사회적 위험요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결과 폭식 행동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예방적 차원에서 폭식 행동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넓혀주었다. 우선 폭식 행동은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의한 결과임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지각된 역기능적인 가정을 측정하는 하위 차원 중 부모의 과보호만 폭식 행동에 영향을 미쳤으며 설명량은 7.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도구가 일반적인 양육을 재는 도구였기 때문에 설명량이 적었다고 이해할 수 있겠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로는 부모-

자녀 관계만으로 폭식을 예측하기엔 다소 부족하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성인 자녀의 현재 폭식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변인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말라야 한다는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오는 부정적인 생활 사건으로 인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스트레스가 여성의 폭식 행동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Paxton & Sculthorpe, 1991; Dionne, Davis, Fox, & Gurevich, 1995; Franzoi, 1995; Cusumano et al., 1997; Mckinley, 1998; Posavac et al., 1998).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성관계, 그리고 좋은 학점은 물론 날씬해야 취직이 잘된다는 진로 문제에서 오는 부정적인 스트레스들로 폭식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부정적인 생활 사건의 경험이 폭식을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피험자의 현재 스트레스 수준을 고려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자녀의 폭식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변인으로 생물학적 성이 선호하는 신체상을 지적할 수 있다. Rozin과 Fallon(1988)은 체중과 섭식에 대하여 자녀의 생물학적인 성, 자녀의 생각, 그리고 부모와의 생각을 측정하였다. 어머니와 딸은 남성이 실제로 선호하는 신체상보다 훨씬 마른 여성을 좋아한다고 믿고 있었다. 연구자는 신체상과 체중에 대한 관심의 주요 요인은 실제적/이상적인 신체형의 지각 사이에서 오는 모순보다는 생물학적 성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어머니와 딸의 신체상에 대한 선호도를 고려한다면 폭식 행동의 더 많은 부분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 유대관계검사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분리하여 측정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문화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버지보다 중요하며, 특히 여성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분하지 않았다. 그러나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심리적 부적응의 증상으로 간주될 수 있는 폭식 행동의 발생 경로를 조사하여 이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넓혔으며, 역기능적인 가정환경에서 오는 16세 이전의 회고적인 스트레스의 경험과 중간 과정의 연결고리를 확인하여 폭식 행동의 치료와 예방적 차원의 개입 가능성을 열어준다. 폭식 행동을 유발시키는 여러 환경적 요인 중 어린 시절의 가정환경이 자녀의 적응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자녀의 정서적 취약성과 인지적 취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기술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역기능적인 가정환경이 수치심 그리고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하위 차원인 정보적 지지라는 연결고리를 통해서 폭식으로 발전한다는 과정을 검증하였고, 이로 인해 폭식 행동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폭식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의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내담자의 수치심을 저하시키고,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고양시킬 수 있는 책략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성희 (1991). 아동의 스트레스 생활사건과 적응에서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문제해결 기술의 역할. 숙명여자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송지영 (1992). 한국판 부모-자녀 결합 형태 검사 (Parental bonding Instrument):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신경정신의학*, 31, 979-991.
- 심중운 (1999). 수치심 경향성, 죄책감 경향성 및 사건 귀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윤소연 (1993). 자신이 지각한 부모와의 관계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윤화영 (1997). 여대생의 폭식행동, 우울 및 귀인양식간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전철은 (2002). 심리적 피학대 여성의 수치심, 죄책감 및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최주희 (1994).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정체감 간의 관계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Abell, E., & Gecas, V. (1997). Guilt, shame, and family socialization: A retrospective study. *Journal of Family Issues*, 18, 99-124.
- Attie, I., & Brooks-Gunn, J. (1989). Development of eating problems in adolescent girls: A longitudinal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25, 70-79.
- Berg, M. L., Crosby R. D., Wonderlich, S. A., & Hawley, D. (2000). Relationship of temperament and perceptions of nonshared environment in bulimia nervosa.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28, 148-154.
- Burney, J., & Irwin, H. J. (2000). Shame and guilt in women with eating-disorder symptomatology.

-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6, 51-61.
- Calam, R., Waller, G., Slade, P., & Newton, T. (1990). Eating disorders and perceived relationships with par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9, 479-485.
- Cohen, S., &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 310-357.
- Crozier, W. R. (1998). Self-consciousness in shame: The role of the 'other'. *Journal of the Theory of Social Behavior*, 28, 273-286.
- Cusumano, D. L., & Thompson, J. K. (1997). Body image and body shape ideals in magazines: Exposure, awareness, and internalization. *Sex Roles*, 37, 701-722.
- Dionne, M., Davis, C., Fox, J., & Gurevich, M. (1995). Feminist ideology as a predictor of body dissatisfaction in women. *Sex Roles*, 33, 277-287.
- Dubois, D. L., Felner, R. D., Brand, S., Adam, A. M., & Evan, E. G. (1992). A prospective study of life stress, social support, and adaptation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3, 542-557.
- Forbes, G. B. (2001). Body dissatisfaction in women and men: The role of gender-typing and self-esteem. *Sex Roles: A Journal of Research*, 44, 461-484.
- Franzoi, S. L. (1995). The body-as-object versus the body-as-process: Gender differences and gender considerations. *Sex Roles*, 3, 417-436.
- Freud, A. (1946). The psychoanalytic study of infantile feeding disturbances. *The Psychoanalytic Study of The Child*, 2, 119-132.
- Furnham, A., Dias, M., & McClland, A. (1998). The role of body weight, waist-to-hip ratio, and breast size in judgments of female attractiveness. *Sex Roles*, 39, 311-326.
- Geller, J., Srikaneswaran, S., Cockell, S. J., & Zaitsoff, S. L. (2000). Assessment of shape- and weight-based self-esteem in adolesc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28, 339-345.
- Goldfein, J. A., Walsh, B. T., & Midlarsky, E. (2000). Influence of shape and weight on self-evaluation in bulimia nervosa.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27, 435-445.
- Goodsitt, A. (1983). Self-regulatory disturbance in eating disorder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2, 51-60.
- Grissett, N. I., & Norvell, N. K. (1992). Perceived social support, social skills, and quality of relationships in bulimic wom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0(2), 293-299.
- Hahn, W. K. (2000). Shame: Countertransference identification in individual psychotherapy. *Psychotherapy*, 37(1), 10-21.
- Hargreaves, D., & Tiggemann, M. (2003). Longer-term implications of responsiveness to 'thin-ideal' television: support for a cumulative hypothesis of body image disturbance? *European Eating Disorders Review*, 11(6), 465-477.
- Havio-Mannila, E. (2001). Slimness and self-rated attractiveness: Comparisons of men and women in two cultures. *Journal of Sex Research*, 38, 102-110.
- Hayaki, J., Friedman, M. A., & Brownell, K. D. (2002). Shame and severity of bulimic

- symptoms. *Eating Behaviors*, 3(1), 73-83.
- Herman, J. L. (1981). *Father-daughter inces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Hill, A. J., Weaver, C., & Blundell, J. E. (1990). Dieting concerns of 10-year-old girls and their mothers.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9, 346-348.
- Holston, J. L., & Cashwell, C. S. (2000). Family functioning and eating disorders among college women: A model of prediction. *Journal of College Counseling*, 3, 5-17.
- Humphrey, L. L. (1986). Structural analysis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eating disorder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5(4), 395-402.
- Kurdek, L., & Schmitt, J. P. (1987). Perceived emotional support from family and friends in members of homosexual, married, and heterosexual cohabiting couples. *Journal of Homo-sexuality*, 14, 57-68.
- LaRocco, J. M., House, J. S., & French, Jr, J. R. P. (1980). Social support, occupational stress, and health.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1, 202-218.
- Lavin, M. A., & Cash, T. F. (2000). Effects of exposure to information about appearance stereotyping and discrimination on women's body image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29, 51-58.
- Leung, N., Thomas, G., & Waller, G. (2000).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bonding and core beliefs in anorexic and bulimic women.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9, 205-213.
- Lewis, M. (1992). *Shame: The exposed self*. New York: Free Press.
- Lin, C. A. (1998). Use of sex appeals in prime-time television commercials. *Sex Roles*, 38, 461-475.
- Loader, P. (1998). Such a shame- A consideration of shame and shaming mechanism in families. *Child Abuse Review*, 7, 44-57.
- McKinley, N. M. (1998). Gender difference in undergraduates' body esteem: The mediating effect of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and actual/ideal weight discrepancy. *Sex Roles*, 39, 113-123.
- Miller, R. J., & Darlington, Y. (2002). Who supports? The providers of social support to dual-parent families caring for young childre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0(5), 461-473.
- Moulds M. L., Touyz, S. W., Schotte, D., Beumont, P. J. V., Griffiths, R., Russell, J., & Charles, M. (2000). Perceived expressed emotion in the siblings and parents of hospitalized patients with anorexia nervosa.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27, 288-296.
- Murphy, F., Troop, N. A., & Treasure, J. L. (2000). Differential environmental factors in anorexia nervosa: A sibling pair study.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9, 193-203.
- Murray, C., Waller, G., & Legg, C. (2000). Family dysfunction and bulimic psychopathology: The mediating role of shame.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28, 84-89.
- Okon, D. M., Greene, A. L., & Smith, J. E. (2003). Family interactions predict intraindividual symptom variation for adolescents with bulimia.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34, 450-457.
- Paxton, S. J., & Sculthorpe, A. (1991). Disordered

- eating and sex role characteristics in young women: Implications for sociocultural theories of disturbed eating. *Sex Roles*, *24*, 587-598.
- Peterson, C. B., Mitchell, J. E., Engbloom, S., Nugent, S., Mussell, M. P., Crow, S. J., & Thuras, P. (2001). Self-help versus therapist-led group cognitive-behavioral treatment of binge eating disorder at follow-up.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30*, 363-374.
- Pike, K. M., & Rodin, J. (1991). Mothers, daughters, and disordered eating.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0*, 198-204.
- Posavac, H. D., Posavac, S. S., & Posavac, E. J. (1998). Exposure to media images of female attractiveness and concern with body weight among young women. *Sex Roles*, *38*, 187-201.
- Pulakos, J. (1996). Family environment and shame: Is there a relationship?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2*(6), 617-623.
- Rorty, M., Yager, J., & Rossotto, E. (1993). Why and how do women recover from bulimia nervosa? The subjective appraisals of forty women recovered for a year or more.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14*, 249-260.
- Rorty, M., Yager, J., Rossotto, E., & Buckwalter, G. (2000). Parental intrusiveness in adolescence recalled by women with a history of bulimia nervosa and comparison women.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28*, 202-208.
- Rozin, P., & Fallon, A. (1988). Body image, attitudes to weight, and misperceptions of figure preferences of the opposite sex: A comparison of men and women in two generation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7*(3), 342-345.
- Sanftner, J. L., Barlow, D. H., Marschall, D. E., & Tangney, J. P. (1995). The relation of shame and guilt to eating disorder symptomatolog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4*(4), 315-324.
- Scheff, T. J. (1988). Shame and conformity: The deference-emotion system.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3*, 395-406.
- Schwitzer, A. M., Bergholz, K., Dore, T., & Salimi, L. (1998). Eating disorders among college women: prevention, education, and treatment responses.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46*, 199-207.
- Shott, S. (1979). Emotion and social life: A symbolic interactionist analysi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4*, 1317-1334.
- Striegel-Moore, R. H., & Kearney-Cooke, A. (1993). Exploring parents' attitudes and behaviors about their children's physical appearance.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15*, 377-385.
- Strober, M., & Humphrey, L. L. (1987). Familial contributions to the etiology and course of anorexia nervosa and bulimia.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5*(5), 654-659.
- Tangney, J. P. (1995). Shame and guilt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J. P. Tangney, & K. W. Fischer (Eds.), *Self-conscious emotions: The psychology of shame, guilt, embarrassment, and pride*(pp. 114-139). New York: Guilford Press.
- Tangney, J. P., Wagner, P., & Gramzow, R. (1992). Proneness to shame, proneness to guilt, and psychopatholog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1(3), 469-478.

Thelen, M. H., Mann, L. M., Pruitt, J., & Smith, M. (1987). Bulimia: Prevalence and component factors in college women.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31, 73-78.

Tracy, E. M. (1990). Identifying social support resources of at-risk families. *Social Work*, 35(3), 252-258.

Winnicott, D. W. (1960). *Maturational process and the facilitating environment*. New York: International Press.

논문접수일: 2005년 5월 14일

수정논문접수일: 2006년 3월 7일

게재결정일: 2006년 3월 22일

# The Relationships among Family Dysfunction, Shame Proneness,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Bulimic Behaviors in College Females

In-Suk Ga                      Myoung-Ho Hyun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dysfunction and bulimic behaviors, and then investigated the mediating effect of shame-proneness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information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overprotection and bulimic behaviors. Subjects were 301 female undergraduates who completed self-report measures assessing Parental Bonding Instrument, Shame scales from The Test of Self-Conscious Affect(TOSCA), Informational support scales from revised Interpersonal Support Evaluation List, Bulimia Test-R.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level of parental care didn't influence bulimic behaviors, but the level of parental overprotection accounted for a significant portion of variance in bulimic behaviors. This finding was that shame-proneness acted as a mediator in the link between parental overprotection and bulimic attitudes. And informational support acted as a moderator in the link between parental overprotection and bulimic behaviors. These current findings suggest that a comprehensive programs of bulimic behaviors should be focused on a emotional and cognitive vulnerability.

*Keywords: family dysfunction, shame-proneness, informational support, bulimic behaviors*